

# 군산시, 지속 예산 지원 명품교육도시 완성한다

### 교육 사업 지원 예산 규모도 317억원 12배 ↑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도시 핵심으로 자리잡아

전국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를 완성한 군산시가 지속적 예산지원을 통해 명성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복지 예산 확충과 교육발전 공동체 협력 강화, 경쟁력을 갖춘 명문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도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33억 원에서 민선6기 2017년에는 317억 원으로 12배나 증가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은 우수학생 인재양성 사업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교육 협력향상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과 어린이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인 어린이행복과 등 군산시 12개 부서에

2017년 교육 사업 예산으로 317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 대비 3.58%를 차지하고 있다.

명품교육도시 군산의 핵심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획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 교사의 사기진작,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들 수 있다.

재단과 군산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의국어교육기반확충사업,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 172억5천만원, 희망교육 활성화 사업(교육격차해소지원사업, 창의적 능력개발지원사업 등) 135억5천만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중학생 진로진학 학습 멘토링 캠프 등) 9억5천만원 등이다.



전국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를 완성한 군산시가 지속적 예산지원을 통해 명성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학생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아동성장환경 조성 등에 지원되는 총 교육 예산을 포함하면 교육예산 비율은 3.58%를 차지한다"며 "군산시는 교육

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란 원칙하에 매년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는 앞으로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격 높은 교육도시 군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익산시는 저출산·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25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주제는 ▲저출산 극복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전방 ▲귀촌·귀촌 기반 마련 ▲생활문화도시 조성 ▲기타 인구 늘리기 방안 등으로 익산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응모 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통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등 총 3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kr) 시민참여-정보마당-공고고시)에 게시되어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아동수당 지원 사업 31일까지 보조인력 모집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아동수당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사업 보조인력을 모집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의 홍보, 신청안내 및 접수, 상담업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인력 24명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사 보조업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로 방문하여 지원하면 된다.

향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6월중 최종선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사업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454-32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이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군산=김정훈기자

## “귀한 생명 탄생 기쁨·축복”

### 육구읍 주민자치위, 출산가정 방문 용품 전달



군산시 육구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근식)는 24일 올해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5세대를 방문하여 기저귀 및 물티슈 등 2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장근식 위원장은 “귀한 생명의 탄생에 기쁜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길 기원한다”며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젊은

아들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며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돼 저출산의 어려움이 극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길용 육구읍장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내 출산가정을 방문해 뜻깊은 선물을 전달해 감사하다”며 “출산 축하선물 증정사업은 출산전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정헌을 익산시장 후보, 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견인 다짐

### “익산역에 콤플렉스 타운 건립”



6·13 지방선거 전북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평화당 정헌을 후보가 역세권 개발에 주력할 뜻을 시사했다.

정헌을 후보는 24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경협 시대에 맞춘 유라시아 철도 거점도시 건설을 통한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맞춰 철도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복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화물물류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남북과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 거

점도시 구축을 통해 익산지역의 생산품과 농산물의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설립과 R&D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전북과학기술원 유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융합을 도모하고 R&D센터를 통해 익산을 신기술 집약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정 후보는 전북광역전철망 구축으로 새만금 배후도시와 물류 중심도시의 강점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산을 중심으로 호남선

###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교류전 풋살대회 열려

제1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교류전 풋살대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익산드림스포츠 협동조합, 군산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주관으로 지난 22일 익산드림스포츠협동조합 풋살장에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후원을 받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총 3개 클럽 16팀 선수 총 150여 명이 참가하여 유소년들과 함께하는 교실을 열어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한편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수로 참가한 학부모 및 관계자 250여 명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모든 선수 가족들이 직접 참가하여 한마음이 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익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익산드림스포츠 협동조합 이승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행복도시 군산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